

해남 포레스트수목원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해남 포레스트(4est)수목원이 산림청 국립수목원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은 국내외 산림생명자원의 보전과 관리, 이용을 위해 조사·수집·

식물학 전공한 김건영씨 부부가 5년여에 걸쳐 조성 2028년까지 5년간 식물자원 보존·증식 역할 수행

증식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된다. 국·공·사립수목원 중 식물의 보존현황, 전문 인력 수준, 표본 보유현황 등을 평가해 지정하며, 포레스트수목원은 대표종인 수국을 포함해 보유하고 있는 식물자원이 100점 이상으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식물자원을 보존하고 증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해남군 현산면 봉동마을에 위치한 4est수목원은 식물학을 전공한 김건영씨 부부가 5년여에 걸쳐 조성한 곳으로, 6만여평 숲을 따라 1,400여종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되어 있다. 2019년 해남 최초 민간 사립수목원으로 등록

됐으며, 인문학과 수목원의 만남을 주제로 동서양의 철학적 이상향이 담긴 소정원들이 다채롭게 조성되어 있다. 특히 8,000여 그루를 식재한 수국정원은 국내 최대 규모로, 품종원에서는 김건영 대표가 전국을 찾아다니며 수집한 50여종의 희귀 수국도 보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남의 대표 관광명소인 포레스트수목원이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에 지정되면서 다양한 식물자원 보전, 전시를 통해 특색있는 지역수목원으로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완도군, 디지털 기기 구입 지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최대 200만 원까지 선착순 지원

완도군은 최근 온라인 주문 등이 증가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 기기 구입 및 디지털 운영 교육 등을 지원하는 '2023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완도군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사업자가 해당된다. 사업 내용은 업체에서 스마트 오더, 디지털 메뉴 보드, 웨이팅 보드, 무인 판매기, 서빙 로봇,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등 디지털 기기 구입 및 인대를 했을 시, 자부담 20%를 제외하고 최대 200만 원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업체가 구입한 디지털 기기 비용이 220만 원(공급가 200만 원, 부가세 20만 원)일 경우 지원 금액은 공급가 200만 원에서 자부담 20%를 제외한 160만 원을 산정하여 지원받게 된다. 임대료의 경우, 임대 기간 내 총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지원금은 사업 신청을 통해 선정된 소상공인(사업주)이 사업비 전액을 선지출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완도군에서 현장 확인 후 지급한다. 사업 신청은 6월 30일까지이며, 7월 중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된다. 신청은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wando.go.kr>)의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경제교통과 소상공인지원팀(061-550-5197)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동조 경제교통과장은 "해당 사업이 비대면 거래 가속화 등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소상공인들이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목포대학교 디지털전환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 디지털 역량 강화 기초 교육,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 교육 등을 실시한다. 교육에 관한 문의는 목포대학교 디지털전환지원센터(061-450-2657)로 하면 된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진도군, 주민과 함께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추진 138개 마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연 500만원씩 3년간 지원

진도군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의 청정자원을 관리·보전하고 경관개선을 위해 주민 스스로 참여해 마을을 가꾸는 특화사업이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고 깨끗한 주변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이 필수적인 블루투어 경쟁력 확보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군은 올해 신규 마을 45개소를 포함, 총 138

개소 마을을 선정해 올해부터 200만원이 증액된 연 500만원의 사업비를 3년간 지원한다. 선정된 마을의 주민들은 ▲꽃길 조성 ▲화단 가꾸기 ▲벽화 그리기 등 경관개선 사업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영농폐기물·해양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지역활동가와 행복디자이너 등 전문인력을 활용해 마을별 고유의 특색을 찾아볼 수 있는 컨설팅을 마을 현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진도=조상용기자



강진군, 농가 고소득 위한 첨단 스마트팜 발전 모색 강진원 군수, 광주 컨테이너형 수직농장 벤치마킹 나서

민선 8기 전남 강진군이 농가의 고소득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ICT 융복합 스마트팜 현장을 방문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19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18일 광주광역시 송학동에 위치한 컨테이너형 수직농장 '티팜광산'을 방문해 첨단 시설을 벤치마킹하고 강진에 접목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 기술을 모색했다. 농협회사 플랜티팜의 광주농장인 '티팜광산'은 약 10m 높이의 컨테이너형 건물에 재배실을 마련해 일명 '유립상추'라 불리는 프리라이스를 재배하는 곳이다. 동시에 27만 5,040포기까지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 농장으로, 단일 수

직농장 중에선 아시아 최대 생산능력을 자랑한다. 27만 5,040포기의 상추를 땅에서 직접 키우려면 축구장 41개 크기인 29만 7,520㎡가 필요하지만 티팜광산 재배 면적은 축구장 하나의 절반 규모인 3,835㎡에 불과하다. 면적당 생산량이 무려 77배에 달한다. 상추 재배에 최적화된 습도와 온도를 손쉽게 컨트롤 할 수 있고, 생산량도 기존 토양 재배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또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의 경우 비바람, 폭설과 같은 악천후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365일 재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 부산면, 27일 '오색찬란 탐진강변에서 노(라)랑' 개최

장흥군 부산면에서 오는 27일 제1회 부산면 오색찬란 탐진강변에서 노(라)랑 행사를 개최한다. 부산면 번영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선비 정신이 살아 있는 다섯 정자길(부춘정, 경호정, 용호정, 동백정, 독우재)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선비의 고장 부산면을 홍보하고 탐진강변길 꽃길 걷기로 장흥담 심천공원 체육인재개발원 등과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취지다. 부산면 부춘교에서 시작한 행사는 종착지점인 용반마을보 주무대에서는 선비주먹밥 시식회, 버스킹 공연, 호랭이·카메라·서각작품·다육이 전시 체험, 보물찾기 경품 지급이 진행

된다. 선착순 100명에게 헌 호미를 가져오면 새 호미로 교환해 준다. 당일 다섯 정자와 꽃길에는 보물찾기로 관광객에게 추억을 선사하고 보물찾기 경품으로는 부녀회원들이 갖 담긴 김치, 이장남이 직접 재배한 마늘·양파, 우리쌀로 만든 찜빵 등을 제공한다. 김철수 부산면 번영회장은 "경상도 부산도 좋지만 장흥 부산도 좋다. 주민과 손님이 함께 즐거운 고을 부산면으로 놀러 오시라"고 말했다. 방지영 부산면장은 "관광객 유치는 물론 주민화합으로 지역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